

ICOMOS 건축문화재 보존원칙을 통해 살펴본 경복궁 홍례문 재건축과 근정전 수리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of the Reconstruction of Heungnyemun and Repair of Geunjeongjeon in Gyeongbok Palace through ICOMOS Documents

최 종 덕* 박 소 현**
Choi, Jong-Deok Park, So-H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construction of the Heungnye Gate and the repair work of the Geunjeong Hall in the Gyeongbok Palace from the perspective of ICOMOS documents on architectural heritage. Som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having been raised from the two projects, are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related ICOMOS documents.

The principles of ICOMOS documents are used to analyze whether significant decisions, already made or to be made while reconstructing or repairing the two traditional wooden structures, are justifiable or not.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demolition of the former Japanese Government-General Building was inevitable for the sake of authenticity of the structure. Second, it is inappropriate to use imported woods and timbers in reconstructing traditional buildings. Third, making alterations to the original form, such as changing roof structure and making posts thicker than before, is not different from tearing up historic documents. Fourth, using modern tiles is incompatible with the ICOMOS principles that put a great importance on aesthetic values and original construction techniques. Fifth, incorporating wooden elements with synthetic resin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reversibility and is not traditional techniques. Lastly, using machine tools and electric equipment is to undermine the authenticity of traditional wooden structures where craftsmanship is an indispensable factor. It also deprives younger carpenters of a chance to learn traditional building techniques, preventing the transmission of priceless techniques to next generations.

키워드 : 복원, 보존, 전통건축, 궁궐

Keywords : Restoration, Preservatio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COMO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시 '원형 유지'의 원칙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¹⁾ 그러나 원형 유지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이 없어 건축문화재의 수리나 복원이 원형 유지의 원칙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판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ICOMOS²⁾는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공감대 아래 '베니스 헌장(Venice Charter)'을 비롯한 역사적 건축물 보존에 관

한 여러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행해질 보존의 실제에 대한 길잡이는 물론 이미 실행한 보존의 실제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베니스헌장',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등 건축문화재 보존에 관련된 ICOMOS의 원칙을 기반으로 경복궁 복원의 일환으로 시행된 홍례문 재건축과 근정전 수리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건축문화재 보존의 실재를 국제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경복궁 복원의 일환으로 시행된 홍례문 재건축과 근정전 수리로 한정한다.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문화재청 근무)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1) 문화재보호법 제3조, 2007년 4월 11일 전문개정

2)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약자로 역사적 건축물과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적인 국제단체이다. <http://www.icomos.org/>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 ICOMOS의 보존원칙을 기반으로 경복궁 흥례문 재건축과 근정전 수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1964년 베니스헌장 이래 발전되어 온 건축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ICOMOS의 원칙들을 고찰한다. 또한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원칙과 ICOMOS의 원칙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ICOMOS의 보존원칙을 통해 우리의 전통건축문화재 보존 현황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 다음으로는 흥례문 재건축과 근정전 수리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재건축과 수리의 이슈들을 파악한 후 이를 앞서 고찰한 ICOMOS 원칙을 기반으로 해석한다.

1.3 용어의 정의

건축문화재 보존에 관련된 명확한 용어가 우리말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경복궁 복원'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보존의 깊이와 정도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다. 사라진 옛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을 복원이라고도 하고, 낡은 옛 건축물을 수리하는 것도 복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후대에 변형된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복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복원'이란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뜻으로 쓰인다. 또한 수리와 보수가 혼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재건축, 복원, 수리에 대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재건축'은 사라진 옛 건축물을 문헌조사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원위치에 본래의 모습대로 새롭게 짓는 것으로 정의한다. '복원'은 역사적 건축물의 없어지거나 변형된 부분을 원래의 모습대로 바로 잡는 것으로 정의한다. '수리'는 역사적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퇴락된 부분을 보강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궁궐은 여러 건축물이 모여 하나의 질서를 이루는 복합체이므로, 궁궐 내에 있는 개별 건축물은 궁궐의 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궁궐을 하나의 유기체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복궁 복원은 없어진 개별 건축물의 재건축, 변형된 건축물의 복원, 궁궐의 역사적 맥락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철거 등 역사적 건축물 보존에 관한 여러 유형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ICOMOS의 건축문화재 보존원칙

2.1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규범과 이에 따른 ICOMOS 보존원칙 적용의 정당성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원칙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

산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 또한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하여 제정된 문화유산헌장은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⁴⁾

여기에 더하여 물질적 차원의 원형 유지만으로는 문화유산의 완전한 보존과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한국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다.⁵⁾ 현재 전통건축과 관련된 무형문화재 종목을 살펴보면, 집을 짓는 대목장(大木匠), 가구와 문짝을 만드는 소목장(小木匠), 건축철물을 만드는 두석장(豆錫匠), 기와를 만드는 제와장(製瓦匠), 한지를 만드는 한지장(韓紙匠) 등이 지정되어 전통기법의 보존 차원에서 보호받고 있다.⁶⁾ 이처럼 한국은 건축문화재를 보존함에 있어서 건축물 자체를 보존하는 유형적 차원의 보존과 함께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전통적 기법을 보존하는 무형적 차원의 보존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은 원형 유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규정한 세부적인 실천규범이 없다. 따라서 '원형 유지'라는 대원칙만 가진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구체적인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의 틀이 필요하다.

한국은 1988년 UNESCO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건축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UNESCO는 세계 각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 보존을 위해 세계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채택했다.⁷⁾ 세계유산협약은 각국의 뛰어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규정하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심사를 ICOMOS에 위임했다. 이는 UNESCO가 건축문화재 보존원칙 정립에 관한 ICOMOS의 전문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이에 따른 ICOMOS의 위상증대는 베니스헌장을 비롯한 ICOMOS의 여러 원칙들이 세계유산등재 방향과 세계 각국의 건축문화재 보존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은 2008년 현재 창덕궁을 비롯해 7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국제적인 보존원칙에 따라 건축문화재를 보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곧 ICOMOS의 보존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

3) 문화재보호법 제3조

4) 문화유산헌장

5) 문화재보호법 제6조

6) 『중요무형문화재 현황』, 문화재청, 대전, p.14, 2007

7) <http://whc.unesco.org/en/conventiontext/>

러므로 여기서 ICOMOS의 보존원칙을 통해 한국의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2.2 ICOMOS의 건축문화재 보존원칙

ICOMOS의 여러 보존원칙 중 건축문화재 보존에 관한 원칙으로는 베니스헌장을 비롯하여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 그리고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을 들 수 있다. 베니스헌장은 역사적 기념물의 보존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는 문화와 유산 다양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은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목구조로 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원칙을 목구조라는 재료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세기 들어 역사적 건축물 보존에 대한 관심이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차원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1964년 이탈리아 정부는 보존 관련 건축가와 기술자를 베니스로 초청해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61개 국가와 UNESCO, ICCROM⁸⁾, ICOM⁹⁾, Council of Europe¹⁰⁾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6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기념물과 유적지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흔히 베니스헌장이라 불리는 기념물과 유적지 보존에 관한 국제적 기본원칙을 채택했다. 베니스헌장은 그 후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 등과 같은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여러 분야의 원칙을 정하는 모태가 되었다.

베니스헌장은 서문에서 역사적 기념물의 의의와 이에 따른 우리 세대의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역사적 기념물의 의의로는 역사적 기념물이 여러 세대에 걸친 과거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오래된 전통의 살아있는 목격자로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기념물의 진정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베니스헌장은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을 하나의 역사적 건축물에서 역사적 도시와 전원의 환경까지 확대했다. 그전까지는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관심은 단일 건축물로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64년의 베니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식적 복원(stylistic restoration)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을 상기하면

서, 건축적 완전성(architectural integrity)과 역사적 진정성과 완전성(historic authenticity and integrity)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¹¹⁾ 베니스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물의 예술성과 더불어 역사적 증거로서의 중요성, 기념물의 영구성, 기념물의 외관과 장식의 변화에 대한 금지, 전통적 환경의 보존, 기념물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이전에 대한 금지, 원래의 재료와 기록에 대한 존중, 추측에 의한 복원 금지, 불가피하게 증축된 부분과 원래의 것에 대한 구별, 전통기법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제한적인 현대적 기법의 사용, 역사적 건축물에 축적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존중 등이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베니스 헌장은 기념물의 보존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기념물의 현대적 활용을 권장하는 한편, 보존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위해 현대과학과 기술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베니스 헌장은 보존, 복원, 발굴에 따른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정에 의한 재건축을 경계하고 있다.¹²⁾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는 UNESCO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의 주도 아래 1994년 일본 나라(奈良)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나라문서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세계유산등재 기준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심사함에 있어서 모든 사회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바람에서 비롯되었다.¹³⁾ 세계유산협약 이행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세계유산의 필수요건인 뛰어난 보편적 가치는 완전성(integrity)과 함께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¹⁴⁾ 그런데 진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문화와 유산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다. 나라문서는 문화와 유산 다양성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한 정신적이고 지적인 풍요로움의 근원이라고 선언하고 있다.¹⁵⁾

나라문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유산을 이루고 있는 유형적이고 무형적 표현의 독특한 형태와 표현에 대한 존중, 문화유산에 부여된 가치에 관한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의 신뢰성과 진실성, 가치에 관련된 핵심적인 자격요건으로서의 진정성, 문화적 맥락에 따른 가치 판단, 정보원의 다양한 측면과 진정성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것이다.

1999년 멕시코에서 열린 제12차 ICOMOS 총회에서 채택된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은 역사적 목구조물이 갖는 문화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적 목구조

8)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의 약자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이다. <http://www.icrom.org/>

9)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의 약자로 박물관 관련 국제기구이다. <http://www.icom.org/>

10) 유럽인의 단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http://www.coe.int/>

11) Jukka Jokilehto, *A History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Oxford, Butterworth-Heinemann, p.289, 1999

12) http://www.icomos.org/venice_charter.html

13) ICOMOS,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2

14) UNESCO,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15) ICOMOS,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5

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과 실재를 정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원칙은 서문에서 인류 문화유산의 일부분인 모든 시대 목구조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적인 목구조물의 다양성과 사용된 목재의 다양한 종류와 질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칙은 서문에서 습기, 빛, 곰팡이와 곤충에 의한 피해, 낡음과 갈라짐, 화재와 다른 재해에 의해 비롯되는 부재의 부패와 질 저하를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칙은 전통적인 디자인과 건설기술에 대한 기법과 지식의 취약성, 잘못된 사용, 사멸로 인해 역사적 목구조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존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행동과 조치를 고려하면서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수리와 복원 전후의 기록과 구조물의 진단, 모니터링과 유지관리, 역사적 진정성과 완전성의 유지, 전통적인 기법의 사용, 수리나 복원의 가역성(可逆性), 미래의 보존작업에 대한 배려, 구조물에 포함된 증거에 대한 미래의 접근 가능성, 바람직한 수리나 복원의 범위와 정도, 제거된 잉여 부재의 처리, 교체부재 허용 및 새로운 부재의 사용, 공구나 기계의 사용을 포함한 장인의 기법과 건축기술, 원래의 것을 복제한 못과 같은 부속 재료의 사용, 전통적인 결구법의 사용, 교체된 부재와 원래 부재의 차별성, 목재 확보를 위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목재저장소의 설립,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 적용, 목구조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3. 경복궁 흥례문 재건축과 근정전 수리의 이슈

3.1 경복궁 흥례문 재건축

경복궁 복원은 일본제국주의가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변형시킨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¹⁶⁾ 이를 위해 조선의 법궁(法宮)¹⁷⁾인 경복궁의 기본 궁제(宮制)¹⁸⁾를 회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다.¹⁹⁾ 경복궁 복원의 중심에는 흥례문 재건축이 있었다. 왜냐하면 일제는 의도적으로 총독부청사를 경복궁의 정면에 세우기 위해 흥례문을

철거했기 때문이다.

흥례문 재건축은 이미 사라진 역사적 건축물을 다시 세운다는 점에서 ‘재건축’이라 할 수 있지만, 경복궁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변형된 경복궁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복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흥례문은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 근정전으로 구성된 경복궁의 남북 축(軸)을 이루는 요소로 흥례문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복궁의 기본 궁제를 회복할 수 없다. 흥례문 재건축을 위해서는 일제가 흥례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운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가 전제 조건이었다. 1990년 10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지금 중앙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일제 총독부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 그 역사적 교훈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그 자리에 경복궁의 옛 모습을 복원하여 일제에 의해 손괴된 우리 얼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²⁰⁾ 또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정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가능한 한 조속히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면서 “5천년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에 합당한 국립중앙박물관을 국책사업으로 건립하는 문제를 정부가 조속히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²¹⁾

이에 대해 한국사회에서는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핵심에는 조선총독부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를 반대하는 쪽은 우리세대에게 주는 조선총독부청사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김정동은 조선총독부청사가 경복궁의 정면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있지만, 일제의 만행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역사적 증거이며, 나름대로 서양의 영향을 받은 근대건축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²²⁾ 이상해는 우리의 역사에 조선왕조 이외에도 다른 왕조가 있었는데 군주제가 아닌 입헌민주제인 대한민국에서 하필 조선왕조의 국맥만을 이어 받으려 하는 지 의문을 가졌다. 또한 그는 조선총독부청사가 갖는 역사적 교훈과 함께 서울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총독부청사 철거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³⁾ 이에 대해 이현희는 조선총독부청사 건립으로 경복궁의 정기를 절단하고 마비시키려 했던 일제의 불손한 동기와 함께 광화문에서 신문문까지 이어지는 경복궁 축이 갖는 국맥(國脈)으로서의 상징성이 조선총독부청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철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²⁴⁾ 또한 장기인도 경

16) 『흥례문권역 중건공사 보고서』, 문화재청, 대전, p.49, 2001
 17) 임금이 주로 사용하는 왕조의 주된 궁궐
 18) 전조후침(前朝後寢), 동궁(東宮), 동조(東朝), 등 궁궐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건축원리를 말한다. 즉 공적인 공간은 궁궐의 전면에 두고 사적인 공간은 궁궐 뒤편에 두며, 왕세자는 떠오르기 전의 태양과 같은 존재이므로 그 거쳐 또한 동쪽에 둔다. 대비의 공간은 중국 한나라의 고사에 의거 동쪽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경복궁 복원정비기본계획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서울, p.13, 1994

20) 「총독부 망령을 허물자」, 동아일보, 1990년 10월 27일
 21) 오명철, 「구총독부 철거: 일제잔대 “상징적 청산”, 동아일보, 1993년 8월 10일
 22) 김정동, 「조선총독부청사 자존에 관한 제언: 보존을 제안한다」, 대한건축학회지, 35권, 3호, 통권160호, p.p.76-77, 1991
 23) 이상해, 「경복궁 경희궁 복원과 옛 조선총독부청사 철거문제」, 대한건축학회지, 35권, 2호, 통권159호, p.p.53-56, 1991
 24) 이현희, 「조선총독부청사는 철거돼야 한다」, 한국논단, 13권, 1호, p.p.104-111, 1990

복궁을 가로막고 있는 조선총독부청사의 장소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건물을 그대로 두면서 원한과 굴욕을 느끼기 보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복궁의 존엄성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청사는 철거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⁵⁾ 논쟁에 대한 결론은 결국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조선총독부청사가 1995년 철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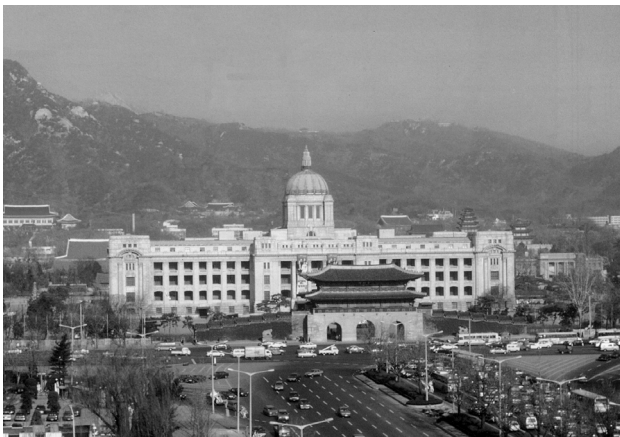


그림1. 경복궁을 가로 막고 있는
철거 전 구 조선총독부청사의 모습
『구 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 보고서 상』

흥례문 재건축에는 외국산 나무가 사용되었다. 기둥, 들보 등 큰 부재에 사용될 국내산 육송을 구할 수 없어 부득불 북미산 더글러스 피(Duoglus-Fir)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감사원은 문화재청이 산림청과 협의해서 국유림에서 큰 국내산 소나무를 구하거나 통일부와 협의해서 북한산 소나무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특대재로 분류되는 지름 45cm, 길이 7.2m 이상의 큰 목재를 구하는 것이 당시 국내에서는 불가능하여 차선책으로 육송의 성능에 버금가는 외국산 나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²⁶⁾

3.2 근정전 수리

근정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남동쪽 귀고주의 변형이 현저하여 구조적인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1999년 수리를 위한 해체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전면 해체에 의한 수리를 거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복원과 수리 시 문화재보호법에서 ‘원형 유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²⁷⁾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수리나 복원의 실재를 살펴보면 옛날과 다른 점을 몇 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 근정전 수리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형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무형적인 차원에서 원형과 벗어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정전 수리에서 원형과 다른 점을 짚어보면, 지붕구조의 변형, 외국산 나무의 사용, 원래의 것과 다른 기와와 철물 등 부속재료의 사용, 전동공구와 기계의 사용, 인공수지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원래 근정전 지붕은 해체에 의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근정전 지붕 속은 상하층 모두 서까래 위에 개판을 깔고 적심을 쌓은 후 산자를 깔고 보토를 쌓았다. 이는 서까래 위에 산자를 깔 다음 보토와 적심을 올리는 일반적인 순서와 조금 다르다. 보토는 회(灰)를 포함하고 있고 기와 조각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도자기 조각도 발견되었다. 보토의 두께는 지붕 곡에 따라 달랐는데 알계는 약 10cm부터 길게는 약 61cm까지 다양하였다. 보토와 적심 사이에는 산자를 깔았는데, 산자는 각재에 가까운 다듬은 목재를 엮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적심은 일반적으로 공사 후 가공하고 남은 것을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정전 적심재는 일반 민가에서는 기둥감으로 쓰일 만한 굵은 원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직경 60cm에 달하는 큰 것도 있었다. 또한, 소점과 대점 등 근정전 중건을 위해 치목한 것으로 보이는 건축 부재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적심과 적심은 서로 띠철로 연결하여 흘러내리지 않도록 했으며, 적심의 두께는 보토와 마찬가지로 지붕 곡에 따라 차이가 났다.²⁸⁾

근정전 구조실패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지붕의 과도한 하중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지붕 하중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원래의 근정전 지붕 속에 속을 비운 목조 구조물을 설치하여 적심이 있던 부분 전체와 보토가 있던 부분의 일부를 빈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지붕 구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근정전 수리 보고서에는 이 부분을 ‘헛집’이라고 부르고 있다. 구조계산 결과, 헛집을 설치할 경우 원래의 지붕 구조보다 약 35%의 하중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정전 헛집 구조를 살펴보면, 적심을 전부 없애고 보토의 두께를 줄이는 대신 그 자리에 50-130cm 높이의 공간이 마련되었다.²⁹⁾

25) 장기인, 「조선총독부청사」, 대한건축학회지, 35권, 2호, 통권159호, p.p.47, 50, 51, 1991

26) 이철희, 이광표, 「감사원 “경복궁 등 문화재복원 수입소나무 많이 썼다”」, 동아일보, 1999년 8월 21일

27) 문화재보호법 제3조, 2007년 4월 11일 전문개정

28) 『근정전: 보수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 상』, 문화재청, 대전, p.p.177-179, 2003

29) 문화재청, 같은 책, p.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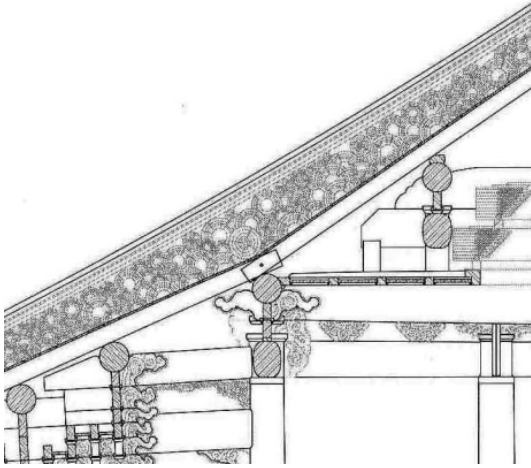


그림2. 수리 전 근정전 지붕 구조

『경복궁 근정전: 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의 근정전 중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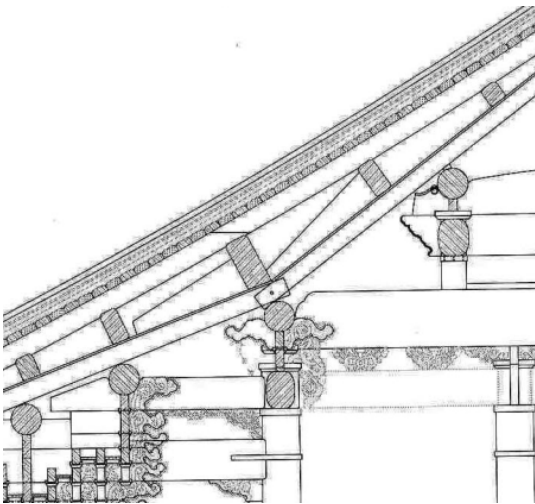


그림3. 수리 후 근정전 지붕 구조

『경복궁 근정전: 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의 근정전 중수기』

다음으로는 외국산 나무의 사용이다. 근정전 해체 결과 귀고주의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4본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귀고주는 예상과는 달리 남서쪽만 소나무이고, 나머지 3개는 전나무였다.³⁰⁾ 근정전 목부재의 수종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나무와 전나무가 함께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부재에는 소나무가 사용되었으나 큰 나무를 필요로 하는 기둥에서는 전나무가 오히려 소나무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기둥에 전나무가 많이 사용된 것은 전나무를 소나무보다 선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둥에 사용될 만한 큰 소나무가 당시에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전나무는 비교적 곧고 긴 나무를 얻기 쉬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³¹⁾

30) 문화재청, 같은 책, p.308

31) 문화재청, 같은 책, p.138

근정전 수리의 도편수를 맡은 신응수는 귀고주의 파손 원인으로 첫째, 근정전의 규모에 비해 귀고주가 가늘고, 둘째, 귀고주에 걸구되는 부재가 많고 이 부재들을 기둥에 걸구하기 위해 기둥을 너무 깊이 파내어 단면 결손이 지나치게 많으며, 셋째, 지붕의 하중이 지나치게 무겁고, 넷째, 귀고주에 육송이 아닌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의 전나무를 사용하였음을 지적했다.³²⁾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소나무로 만들어진 남서쪽 귀고주는 다른 귀고주보다 균열이나 터짐이 적은 편이었다.³³⁾

귀고주는 다듬은 치수로 높이 11.6m, 상부 굽기 55cm, 하부 굽기 67cm의 장대한 부재로 국내산 소나무를 구할 수 없어 북미산 더글러스피를 부득이 사용하였다. 교체할 귀고주의 치목은 기둥의 단면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부축 깊이를 원래의 것보다 얇게 하는 동시에 원래의 것보다 27-37mm 정도 직경을 굵게 하였다(표 1)³⁴⁾

표1. 근정전 귀고주 교체 전, 후 마감치수 비교

단위: mm

구분	상부(직경)	하부(직경)	길이	비고
귀고주 1	545	660	11,610	교체 전
귀고주 1	561	697	11,611	교체 후
귀고주 2	551	665	11,611	교체 전
귀고주 2	559	697	11,611	교체 후
귀고주 3	551	658	11,611	교체 전
귀고주 3	561	697	11,611	교체 후
귀고주 4	551	670	11,605	교체 전
귀고주 4	561	697	11,609	교체 후

『경복궁 근정전: 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의 근정전 중수기』, P.41

근정전의 수리에 있어 인공수지가 부재의 재질에 상관 없이 널리 사용되었다. 목재에 사용된 수지는 첫째, 부재 자체의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둘째, 목구조의 조립 후 벌어진 틈새를 메우기 위해, 셋째, 걸구된 부분을 일체화하여 목구조를 보강하기 위함이었다. 목부재의 갈라진 틈새, 떨어진 부분 등을 수지로 메워 원래의 상태로 만들었

32) 신응수, 『경복궁 근정전: 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의 근정전 중수기』, 현암사, 서울, p.42, 2005

33) 신응수, 같은 책, p.41; 『근정전: 보수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 상』, 문화재청, 대전, p.224, 2003

34) 신응수, 같은 책, p.p.41-42

다. 또한 목구조 조립 후 틈새가 작은 경우 수지만으로 메웠으나 틈새가 큰 경우 나무를 대고 수지를 발라 틈새를 메웠다. 상층 평방의 경우 전체적으로 맞춘 후 띠쇠로 보강한 후 다시 결구부분에 수지를 채워 일체화시켰다.³⁵⁾

석재와 장식기와는 갈라진 곳은 수지로 붙여 사용하였고, 틈새가 벌어진 곳은 수지로 메웠다.³⁶⁾

근정전 수리에 사용된 연장과 기계는 중건 당시인 1867년에 사용되었던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것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일의 능률을 중시하는 경제적 관점에 의해 각종 전동 연장이 활용되었다. 대패와 톱을 비롯한 손연장의 경우, 일본식 연장이 많이 쓰였다.³⁷⁾

전통적인 치목연장은 톱, 대패, 자귀, 끌 등이었다. 톱은 부재를 자르거나 켄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조선 후기에는 '탕개톱'이라 불리는 톱이 거의 모든 건축공사에 쓰였다. 탕개톱은 용도에 따라 켄톱과 자름톱으로 구분되며, 크기에 따라 대톱, 중톱, 소톱으로 구분되었다. 원목을 1차 가공할 때에는 대톱이 사용되었는데, 근정전 해체 부재에서 대톱을 사용한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³⁸⁾



그림4. 탕개톱질
『건축장인의 땀과 꿈』

그러나 근정전 수리에 사용된 톱은 휴대용 일본식 손톱과 휴대용 전동 톱, 그리고 대형 기계식 톱이었다. 휴대용 일본식 손톱은 일제강점기 이후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휴대용 전동 톱으로는 전기 원형톱, 전기 체인톱 등이 있다.³⁹⁾

전통적인 우리의 대패는 대패 집에 날을 하나만 끼운 흘날대패로 앞으로 밀어서 깎도록 되어 있다. 이 대패의 결점은 목재 결 방향으로 잘 깎을 수 있으나 결의 반

대 방향으로서는 깎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한 것이 대패 날을 하나 더 추가한 덧날대패다. 덧날대패는 흘날대패와는 달리 대패밥이 생기는 즉시 덧날에 밀려 나오기 때문에 흘날대패와는 달리 엇결에도 대패질이 가능하다. 덧날대패는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에서 도입되어 현재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근정전 수리에 쓰인 손대패도 이와 같은 덧날대패였다. 손대패 외에 휴대용 전기대패와 탁상형 기계대패 등 전동대패가 작업의 능률을 위해 근정전 수리에 사용되었다⁴⁰⁾

목재를 가공하는 오래된 연장으로 자귀가 있다. 자귀는 크기에 따라 '대자귀', '중자귀', '소자귀'로 구분된다. 대자귀는 주로 서서 목재를 다듬는 것으로 원목을 손질할 때 사용된다. 소자귀는 한 손으로 쓸 수 있는 자귀로 보다 세밀한 곳을 가공할 때 사용된다. 근정전 해체부재에서 중건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자귀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당시 자귀를 사용한 것이 확실시 된다. 근정전 수리에는 대자귀와 소자귀가 일부 사용되었다.⁴¹⁾

끝은 결합부의 구멍을 뚫거나 축을 만드는 정밀한 작업에 사용된다. 전통 끝은 머리부터 날까지 통 쇠로 되어 있었으며, 다른 말로는 '주리'라고도 했다. 옛날에는 끝을 치는 망치가 모두 나무망치였기 때문에 끝 자체가 무거워야 했다. 이때 사용된 끝 망치를 '끝방망이'라 했는데, 주로 대추나무로 만들었으며 쇠망치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끝은 쓰는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때려서 구멍을 파는 때림끝, 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밀어서 사용하는 손밀이끝이 있다. 이외에도 쌍장부축을 만드는 쌍장부끝, 파내려고 하는 나무에 구멍 자국만 내는 박이끝 등이 있다. 현재는 주로 나무자루가 달린 끝이 사용되는데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 일본인들이 개량한 것이다. 근정전 수리에도 개량된 끝이 사용되었다.⁴²⁾

근정전 기와는 당초 70% 교체를 예상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새 기와의 문양과 옛 기와의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체된 기와를 대상으로 문양과 강도 그리고 흡수율에 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막새와 암막새의 문양은 연대가 가장 올라가고 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결정되었다. 옛 기와에 대한 흡수율과 강도는 각각 18-22%, 115-181kg/cm²으로 이는 KS 기준치인 흡수율 9%, 강도 280kg/cm² 기준에 미달되었다. 이에 따라 수기와와 암기와, 그리고 수막새와 암막새는 전량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용두, 잡상, 취두 등 장식기와는 인공수지로 보강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사용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것은 교체되었다.⁴³⁾ 새 기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현대식 기계설비에 의해 공장 제작된 것이다.

35) 『근정전: 보수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 상』, 문화재청, 대전, p.344, 2003

36) 문화재청, 같은 책, p.346

37) 문화재청, 같은 책, p.379

38) 문화재청, 같은 책, p.385

39) 『근정전: 보수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 상』, 문화재청, 대전, p.p.385-386, 2003

40) 문화재청, 같은 책, p.p.390-392

41) 문화재청, 같은 책, p.p.393-395

42) 문화재청, 같은 책, p.p.395-397

43) 문화재청, 같은 책, p.35

4. ICOMOS 건축문화재 보존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북 궁 흥례문 재건축과 근정전 수리의 현황 해석

4.1 경북궁 복원과 흥례문 재건축에 따른 조선총독부청사 철거

베니스헌장은 역사적 기념물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목적은 예술적 작품으로서뿐 아니라 역사적 증거로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⁴⁴⁾ 또한 베니스헌장은 기념비적 건축물에 가해진 모든 시대의 정당한 기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⁴⁵⁾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일제의 한반도 침략의 상징인 조선총독부청사는 역사적 증거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청사의 건축이 경북궁에 가해진 정당한 시대적 기여일 경우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북궁의 진정성에 대한 관점에서 경북궁 복원과 이를 위한 흥례문 재건축 그리고 조선총독부청사 철거 문제를 바라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베니스헌장은 전문에서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기념물의 진정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유지시켜 물려줄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 나라문서는 진정성은 정해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문화유산이 속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또한 진정성은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의 다양한 가치와 연관될 수도 있으며,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부재, 사용성과 용도, 전통과 기술, 위치와 배치, 정신과 느낌 등의 요소들이 다양한 정보원의 가치와 연관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⁴⁷⁾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북궁 복원과 조선총독부청사 철거 문제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경북궁이 갖는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비록 조선은 멸망했지만, 일반 국민은 아직까지 조선의 궁궐 경북궁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활용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지만, 궁궐만큼은 아직까지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다. 궁궐의 무분별한 활용이 국민들이 가진 궁궐에 대한 경외감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2005년부터 궁궐 활용에 대한 ‘장소사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북궁이 국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북궁 복원에 있어서 조선총독부청사 문제는 조선총독부청사보다는 경북궁을 위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남에서 북으로,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으로 이어지는 경북궁의 중심축 위에 있는 흥례문을 없애고 세워졌

던 조선총독부청사는 경북궁의 전통적인 배치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경북궁의 진정성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베니스헌장은 “기념물을 보존한다는 것은 규모에 벗어나지 않는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전통적인 환경이 존재하는 곳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⁸⁾ 조선총독부청사는 경북궁 내의 전각들에 비해 엄청난 규모의 부피감과 중량감을 가지고 있다. 근정전과 경회루를 제외하면 단층 전각들로 구성된 경북궁에서 조선총독부청사는 다른 전각들과는 어울리기 힘든 거대한 규모를 가졌을 뿐 아니라 경북궁의 정면을 가로 막고 있어 전통적인 조선의 궁궐 환경을 철저히 깨뜨리고 있었다.

4.2 외국산 나무의 사용

건축재료는 건축물의 구조는 물론이고 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료가 가지는 진정성은 건축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문화재와 같은 역사적 건축물일 경우, 건축재료는 건축물의 특성은 물론이고 그 시대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베니스헌장도 옛 건축물에서 재료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래의 재료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⁹⁾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역시 문화유산의 재료가 진정성에 관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⁰⁾ 따라서 소나무를 건축재료의 으뜸으로 여긴 우리의 전통을 고려할 때 소나무 대신 외국 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건축문화재의 진정성을 훼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은 부재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같은 수준의 목재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⁵¹⁾ 그러나 건축재료는 한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흔했던 재료가 현재는 귀하거나 심지어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나무와 같은 천연재료는 성장에 소요되는 절대적인 시간으로 인해 단기간의 노력으로 원하는 부재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나무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ICOMOS는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을 통해 필요한 목재를 공급할 수 있게 산림자원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⁵²⁾

이미 조선시대에도 나무가 갖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봉산(封山)’제도를 두어 산에 있는 소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했다. 순조 8년(1808)에 편찬되어 임금이 나랏일에 참고하도록 만든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봉산제도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48) ICOMOS, Venice Charter, Article 6

49) ICOMOS, Venice Charter, Article 9

50) ICOMOS,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1

51)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9

52)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12

44) ICOMOS, Venice Charter, Article 3

45) ICOMOS, Venice Charter, Article 11

46) ICOMOS,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1

47) ICOMOS,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3

소나무는 그 쓰임이 매우 크므로 금하는 것이 매우 엄하다. 위로는 궁전의 재목으로부터 아래로는 전함(戰艦)·조선(漕船)의 수요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크도록 길러야 되는 것이다. 이러므로 봉산을 획정하여 식목을 권장하고 벌채를 금지하며, 대전(大典)에 명확히 기재하고 사목(事目)을 만든 것이다.⁵³⁾

봉산제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문화재보존용 소나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최근에 있었다. 문화재청과 산림청은 2005년 11월 11일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문화재 수리 및 복원용 소나무를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 협약문은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후손들이 전통건축을 수리하고 복원하는데 사용할 금강송⁵⁴⁾ 보호령을 조성하는데 합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4.3 현대식 기와의 사용

기와와 같이 1차 가공을 거치는 건축재료인 경우, 전통 기법의 보존과 관련이 많다. 무형문화재 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형 유지는 전통건축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복원할 경우, 전통기법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와는 전통건축에서 건축물의 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료 중의 하나이다. 옛 기와와 현재 사용되는 기와가 모양과 색상, 그리고 질감이 서로 달라 옛 기와를 걷어내고 새 기와를 얹은 건물은 하나 같이 본래의 지붕이 가졌던 분위기를 잃고 만다. 이는 전통적인 기와제작 기법과 현대적인 공장생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전통기와는 기와 가마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색상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며 기와 표면에는 제작 과정에서 생긴 의도되지 않은 문양이 있다. 이에 비해 현대식 기와는 공장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기계적으로 생산되어 색상이 일정하고 표면이 매끈하며 한국공업규격인 KS 규정에 의해 강도와 흡수율 등의 품질이 정해져 있다.

전통기와는 목재로 기와 가마의 온도를 올리며 최대온도는 약 1200℃까지이며 목재의 특성으로 인해 온도가 균일하지 않아 같은 가마의 기와일지라도 색상이 일정하지 않고 형태 또한 변형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대식 기와는 가스나 기름을 연료로 하는 가마에서 1400℃까지 일정한 온도로 소성되어 형태의 변형이 없고 일정한 색상이 유지된다. 또한 전통기와가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져 가마에 소성하기 전부터 약간의 불규칙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현대기와는 기계로 성형되어 일정한 모양을 유지한다. 이렇듯 현대기와는 잘 통제된 설비에 의해 공장 생산

되어 균일한 색상과 질감을 유지한다. 그러나 전통기와와는 소성과정에서 표면 탄소처리가 완벽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색되어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한다.⁵⁵⁾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은 기와와 같은 “표면 마감재를 교체하거나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원래의 재료, 기술과 질감은 가능한 한 그대로 복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⁶⁾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기와와 현대식 기와는 제작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질감과 색상이 전혀 다르다.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은 또한 “공구나 기계의 사용을 포함한 장인의 기법과 축조 기술은 가능하다면 원래 사용된 것과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 원칙은 “못과 다른 부수적인 재료들은 적절하다면 원래의 것을 그대로 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전통건축문화재의 수리나 복원에 사용되는 기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인의 솜씨에 의해 옛 모습대로 재현되어야 한다.

또한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은 부패되거나 파손된 부재를 교체할 경우 미학적인 가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⁸⁾ 베니스헌장 역시 복원의 목적은 기념물의 역사적이고 미학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드러내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⁵⁹⁾ 그러나 전통기와가 가지는 의도되지 않은 불균일성의 독특한 미학적 가치는 공장 생산된 현대적 기와의 균일하고 매끈한 질감과 색상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만다.

4.4 현대적 건축연장 및 전통공구의 사용

장인의 솜씨에 의존했던 전통건축의 생산특성으로 인해 장인의 기법은 전통건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전통기법은 전통연장을 통해 발휘되기 때문에 연장과 기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조선시대 건축연장은 그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건축장인이 자신의 기호와 신체조건에 따라 직접 만들어 썼다. 소규모 수공업이 일반적이었던 당시의 생산형태와 문헌이나 기록에 건축연장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장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무한 사실을 감안할 때 건축연장의 대량생산은 생각하기 힘들다.⁶⁰⁾ 이에 비해 작업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의 건축생산은 손작업용 전통건축연장이

53) 서영보, 財用編五 松政 總例, 『萬機要覽』, 한국고전번역원, 서울, 1971

54) 경북 북부 지방으로부터 강원도의 태백산맥 일원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를 일컫는다. 금강송은 더디 자라 나이가 많아 좁고 치밀하여 잘 썩지 않으며 수형이 곧아 예로부터 궁궐 건축 등 주요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었다.

55) 김왕직, 김석순, 「기와의 보존과 활용」, 대한건축학회지, 49권, 12호, p.69, 2005

56)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7

57)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9

58)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9

59) ICOMOS, Venice Charter, Article 9

60) 이왕기, 임승호, 「문화재 보수공사에 사용된 건축도구와 전통건축기술의 보존」, 건축역사연구, 제14권, 2호, 통권 42호, p.263, 2005

담당하던 많은 부분을 기계화하고 전동화하여 손작업의 비중을 현저히 낮추었다. 여기에 더하여 대패나 톱 등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손작업 연장에서도 일본 등 외국의 영향으로 보다 효율적인 연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베니스헌장은 “기념물의 보존과 복원에는 건축 유산의 연구와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과학과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¹⁾ 현대적 건축연장과 전동공구 및 기계도 베니스헌장에서 말하는 기술을 활용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활용되는 과학과 기술이 건축문화화의 가치를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문서는 “모든 문화와 사회는 그들의 유산을 이루고 있는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표현의 독특한 형태와 수단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⁶²⁾ 여기서 전통건축연장을 사용하는 장인의 기법은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표현의 독특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목조건축물의 경우, 연장과 치목기법 그리고 그 결과인 건축물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전동공구나 기계에 의한 치목은 역사적 목조건축물이 가졌던 “독특한 수단”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전동공구나 기계에 의존하는 것은 건축물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나라문서는 “전통과 기법”이 진정성과 관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⁶³⁾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은 수리나 복원은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⁴⁾ 또한 이 원칙은 “공구나 기계의 사용을 포함한 장인의 기법과 건축기술은 가능하다면 원래 사용된 것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⁵⁾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목적을 위해 전동공구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나 복원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5 기존 구조의 변경

근정전 수리에서 구조적으로 변형된 것은 지붕과 고주이다. 지붕의 경우, 서까래 위에 개판, 적심, 산자, 보토, 기와로 겹겹이 쌓이던 기존의 구조를 하중을 경감시킨다는 명분 아래 적심과 산자를 없애고 ‘헛집’이라 불리는 목구조물을 대신 설치한 후 보토를 엮는 방식으로 변경시켰다. 그리고 교체된 고주의 직경이 원래의 것보다 27-37mm 굵어졌다. 그러면 과연 구조적으로 기존의 것보다 유리하면 좋은 것이며 허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베니스헌장은 “기념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목적은 예술작품으로서뿐 아니라 역사적 증거로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고 밝히고 있다.⁶⁶⁾ 여기서 역사적 증거는 건축물 전체는 물론이고 건축물에 포함된 세부적인 부분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건축물이 지어진 당시의 모든 것은 상황과 관점에 따라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정전이 세워질 당시의 지붕 구조는 당시의 건축적 구조를 설명하는 역사적 증거이기도 하고 당시의 기술력과 산업생산 등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주의 굵기도 마찬가지이다. 고주의 직경은 구조적 관점을 떠나 행여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가령 고주의 직경이 모듈화된 옛 구조체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건축적 비례 등에 있어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더욱이 130년 이상을 견딘 고주의 재질을 원래의 전나무보다 강도가 큰 외국산 나무로 바꾸면서 기둥의 직경까지 크게 하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과도한 것이다.

한편, 베니스헌장은 “전통의 기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명이 난 경우, 그 효과가 과학적인 데이터와 경험에 의해 증명된 보존과 건설을 위한 현대적인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기념물을 보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⁶⁷⁾ 그러면 전통의 기법, 즉 근정전 지붕 구조와 고주의 굵기가 부적절한가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정전은 고종4년(1867)에 중건된 이후 큰 수리 없이 130년 이상을 견딘 구조물이다. 만약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만큼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면 중간에 대규모의 수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나라문서에 의하면, 건축물의 “재료와 부재” 그리고 “전통과 기법”은 건축물의 진정성과 연관될 수 있다.⁶⁸⁾ 따라서 지붕 구조의 변경으로 인한 재료와 부재의 변경, 고주 굵기의 증가로 인한 부재의 변경은 근정전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적심과 보토를 채워 지붕을 만드는 전통 목조건축물의 “전통과 기법”을 지붕을 가בע게 한다는 현대적 관점에 의한 구조적 합리성을 이유로 이를 다르게 변형시키는 것은 진정성에 대한 훼손이다.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은 “보존의 주된 목적은 문화유산의 역사적인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⁶⁹⁾ 건축물의 완전성(integrity)은 건축물의 모든 구성 요소가 원래의 모습대로 온전하게 제 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원래의 지붕 구조가 ‘헛집’이라는 새로운 요소로 변형되었다면 건축물의 완전성이 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1) ICOMOS, Venice Charter, Article 2

62) ICOMOS,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7

63) ICOMOS,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3

64)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5

65)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9

66) ICOMOS, Venice Charter, Article 3

67) ICOMOS, Venice Charter, Article 10

68) ICOMOS,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3

69)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4

4.6 인공수지 처치

인공수지로 접합부의 틈새를 메워 일체화 시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과 어긋난다. 첫째, 화학적으로 부재와 부재의 결구를 일체화 시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다 나은 방법이 발견되었을 때 되돌릴 수 없어서 “수리나 복원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⁷⁰⁾ 둘째, 접합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일체화시키는 것은 구조적으로 더 튼튼한 방법인가 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전통적인 목구조 결구법이 아니므로 기존 부재는 물론이고 새로운 부재와 기존의 부분을 연결할 때 전통적인 목구조 결구법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에 어긋난다.⁷¹⁾ 다음으로 에폭시레진과 같은 현대적인 재료는 재료의 내구성이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만족스러울 만큼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선별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근정전 수리에 사용된 인공수지가 내구성에 대한 증명을 거쳤는지 하는 어떤 언급도 보고서에 없다.⁷²⁾ 이는 기념물은 영구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베니스현장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⁷³⁾

5. 결 론

ICOMOS의 베니스현장,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을 기반으로 경복궁 흥례문 재건축과 근정전 수리 현황을 해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경복궁 복원의 일환으로 진행된 흥례문 재건축과 이를 위한 조선총독부청사 철거는 경복궁의 위치와 배치 그리고 경복궁이 국민들에게 주는 정신과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경복궁의 진정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며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전통목조건축문화재에 국내산 소나무 대신 외국산 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재료를 존중하는 베니스현장의 정신과 어긋나며 재료가 역사적 건축물의 진정성과 관련될 수 있다는 나라문서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진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많다. 외국산 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국내산 소나무의 고갈에 따른 것이므로 전통건축문화재의 수리와 복원을 위한 소나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목재저장소의 설립이 요구된다.

셋째, 전통기와 대신 공장 생산되는 현대식 기와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기법의 단절과 함께 지붕의 질감과 색상 차이를 초래한다. 이는 역사적 가치와 함께 미학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한 베니스현장의 정신과 다르고 전통기법에 따를 것을 주문한 역사적 목구조물 보존을 위한 원칙과도 다르다.

넷째, 전통적 건축연장 대신 전동공구나 기계를 사용하는 전통건축문화재의 수리와 복원은 나라문서에서 언급하듯이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한 장인의 기법에 뿌리를 둔 전통건축문화재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또한 전통기법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차원에서도 전동공구와 기계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섯째, 지붕 구조의 변경과 고주 굽기의 증가와 같은 구조적 변형은 옛 구조가 가지는 역사적 증거를 없애는 것이며, 옛 구조의 전통과 기법을 무시하는 측면에서 진정성의 훼손이다. 또한 옛 건축물의 구조체를 변형시켜 모든 건축적 요소들이 제자리에 온전히 있던 것을 변형시켜 완전성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했다.

여섯째, 인공수지를 목구조의 결구부에 충전시켜 일체화 시킨 것은 전통적인 결구법에 어긋나며 보존 처리의 관점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역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문화재와 관련된 ICOMOS의 보존원칙은 ‘원형 유지’의 큰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존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되짚어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재 보존의 실재를 해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건축장인의 땀과 꿈』,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1999
- 『경복궁 복원정비기본계획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서울, 1994
- 『근정전: 보수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 상』, 문화재청, 대전, 2003
- 김정동, 「조선총독부청사 자존에 관한 제언: 보존을 제안한다」, 대한건축학회지, 35권, 3호, 통권160호, p.p.76-77, 1991
- 김왕직, 김석순, 「기와의 보존과 활용」, 대한건축학회지, 49권, 12호, p.p.66-73, 2005
- 「총독부 명령을 허물자」, 동아일보, 1990년 10월 27일.
- 오명철, 「구총독부 철거: 일제잔재 “상징적 청산”」, 동아일보, 1993년 8월 10일.
- 이철희, 이광표, 「감사원 “경복궁 등 문화재복원 수입소나무 많이 썼다”」, 동아일보, 1999년 8월 21일.
- 문화유산현장
- 문화재보호법, 2007년 4월 11일 전문개정
- 신응수, 『경복궁 근정전: 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의 근정전 중수기』, 현암사, 서울, 2005
- 이상해, 「경복궁 경회궁 복원과 옛 조선총독부청사 철거문제」, 대한건축학회지, 35권, 2호, 통권159호, p.p.52-56, 1991

70)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5

71)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9

72)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13

73) ICOMOS, Venice Charter, Article 4

13. 이왕기, 「근정전 공사와 건축연장의 변모」, 『근정전 보수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 상』, 문화재청, 대전, p.p.379-400, 2003
14. 이왕기, 임승호, 「문화재 보수공사에 사용된 건축도구와 전통건축기술의 보존」, 건축역사연구, 제14권, 2호, 통권 42호, p.p.262-277, 2005
15. 이현희, 「조선총독부청사는 철거돼야 한다」, 한국논단, 13권, 1호, p.p.104-111, 1990
16. 장기인, 「조선총독부청사」, 대한건축학회지, 35권, 2호, 통권159호, p.p.44-51, 1991
17. 『중요무형문화재 현황』, 문화재청, 대전, 2007
18. 『홍례문권역 중건공사 보고서』, 문화재청, 대전, 2001
19. 서영보, 『萬機要覽』, 한국고전번역원, 서울, 1971
20. ICOMOS,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21.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22. ICOMOS, Venice Charter
23. Jukka Jokilehto, *A History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Oxford: Butterworth-Heinmann, 1999
24. UNESCO,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接受: 2008. 9. 4)